

“서로 의지하는 노년층의 새로운 우정”

글 유인중 편집부 / 사진제공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동년배인 독거노인과 봉사자가 말벗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노노케어사업은 노인들의 정서 안정에 큰 도움을 준다. 사진은 중원노인종합복지관 박명선 봉사자의 말벗 전화 봉사와 봉사단 발대식 모습(왼쪽부터).

2016년 10월 말, 경기도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중원복지관)으로 정모(여·78) 씨가 찾아왔다. 가족 없이 혼자 생활하는 정씨는 중원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노(老老)케어사업’ 수혜자였다. 보행기에 의지해야 이동이 가능한 정씨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중원복지관 상담실까지 찾아온 이유는 그녀에게 말벗 봉사를 해주는 박명선(여·69) 씨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였다.

정씨는 얼마 전 임대아파트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한글을 몰라서 박씨가 서류작성을 꼼꼼하게 대신해 주었다고 한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그날 아침 주민센터로부터 임대아파트 당첨 연락을 받았다.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박씨에게 전하고 싶었는데 몇 차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아 걱정스러운 마음에 상담실을 찾아온 것이었다. 박씨가 개인사정 때문에 전화를 받지 못한 것으로 뒤에 밝혀졌지만, 이는 중원복지관의 노노케어사업 성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노노케어사업이란 아산재단이 2015년부터 기획해 진행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독거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건강한 노인 자원봉사자가 형편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주 2회 이상 전화를 걸어 안부확인하고 말벗 봉사를 한다. 2015년에는 전국 12개 노인복지관을 선정해 봉사자 330여 명이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독거

노인 1천여 명의 전화 말벗이 됐고, 2016년에는 28개 기관의 봉사자 690여 명이 독거노인 1,600여 명의 친구가 돼주고 있다.

중원복지관은 2015년부터 2년째 노노케어사업을 진행 중이다. 첫해에는 35명의 봉사자가 각각 2명씩 70명의 독거노인과 친구가 됐고, 2016년에는 사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봉사자를 15명으로 압축해 30명의 말벗이 돼주고 있다. 특히 중원복지관의 봉사자들은 독거노인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서로 간의 친밀도를 높이고 있다. 그래서 수혜자인 독거노인이 봉사자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안부를 걱정하는 관계의 역전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중원복지관의 서재순(35) 사회복지사는 “독거노인들은 동년배인 봉사자와의 새로운 우정을 통해 외로움이 줄면서 심리적 안정을 찾고 있어요. 봉사자들 또한 다른 사람을 돕는 자존감 향상을 경험하죠.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아산재단의 노노케어사업이 계속돼야 할 이유입니다”라고 말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200여 사회복지단체에 407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